

네 부모를 공경하라

[성경본문] 출애굽기 20:12, “네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너의 하나님 나 여호와가 네게 준 땅에서 네 생명이 길리라.”

제5계명의 중요성

“네 부모를 공경하라”는 제5계명은 인간 관계의 계명들 중 첫째 계명이다. 하나님의 계명은 하나님께서 주신 것, 곧 하나님의 권위로 주신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성경에 계시된 하나님의 계명들을 순종해야 한다. 사도들의 글인 신약성경도 동일하게 교훈한다. 에베소서 6:2, “네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자녀에게 그 부모를 공경하라고 가르치는 것은 그를 좋은 인격자로 그리고 하나님의 복을 받을 자로 양육하는 바른 길이다.

효도의 방법

1. 공경할 것

십계명의 제5계명인 오늘 본문은 “네 부모를 공경하라”고 명한다. 공경하는 것은 상대방을 높이고 존중하는 것이다. 자녀들은 부모님을 무시하거나 업신여기지 말아야 한다. 잠언은 미련한 자가 부모를 무시하거나 업신여킨다고 말하며(잠 15:20), “네 늙은 어미를 경히 여기지 말라”고 하였다(잠 23:22). 하나님께서는 심지어 레위기 19:3에서 “너희 각 사람은 부모를 경외하라”고 말씀하셨다.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할 뿐 아니라, 부모님도 경외해야 한다. 부모 공경에 대해, 신약성경도 동일한 교훈을 한다. 사도 바울은 “네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고 말하였다(엡 6:2).

2. 기쁘시게 할 것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은 부모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다. 잠언은 지혜로운 자녀가 부모를 기쁘시게 한다고 말한다. 잠언 10:1, “지혜로운 아들은 아비로 기쁘게 하거니와.” 잠언 15:20, “지혜로운 아들은 아비를 즐겁게 하여도.” 자녀들은 부모님을 기쁘시게 해야 한다. 잠언 23:25, “네 부모를 즐겁게 하며 너 낳은 어미를 기쁘게 하라.”

3. 순종할 것

자녀는 부모님께 순종해야 한다. 잠언 1:8-9, “내 아들이야, 네 아버지의 훈계를 들으며 네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말라. 이는 네 머리의 아름다운 관이요 네 목의 금사슬이니라.” 잠언 13:1, “지혜로운 아들은 아버지의 훈계를 들으나 거만한 자는 꾸지람을 즐겨 듣지 아니하느니라.” 잠언 15:5, “아버지의 훈계를 업신여기는 자는 미련한 자요 경계를 받는 자는 슬기를 얻을 자니라.” 에베소서 6:1, “자녀들아, 너희 부모를 주 안에서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골로새서 3:20, “자녀들아,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기쁘게 하는 것이니라.” 로마서 1:30은 부모 거역을 죄악의 목록 속에 포함하였고, 디도서 1:6은 장로의 후보자의 자격으로 불순종하는 일이 없는 믿는 자녀를 둔 자라야 한다고 말하였다. 물론, 성도는 ‘주 안에서’ 부모에게 순종해야 한다(엡 6:1). ‘주 안에서’라는 말은 그 순종이 하나님의 진리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 안에서 이루어져야 함을 보인다. 예를 들어, 죄를 지으라는 말 같은 것은 순종할 수 없다.

4. 보답할 것

디모데전서 5:4는, “만일 어떤 과부에게 자녀나 손자들이 있거든 저희로 먼저 자기 집에서 효를 행하여 부모에게 보답하기를 배우게 하라. 이것이 하나님 앞에 받으실 만한 것이니라”고 말하였다. 자녀

출애굽기 20:12, “네 부모를 공경하라.”

는 부모를 통해 이 세상에 출생하고 양육되며, 부모는 대체로 자신보다 자녀들을 위해 먹을것과 입을 것을 준비하며 공급한다. 그러므로 자녀가 부모님에게 보답하는 것은 합당한 일이다.

효도의 복

하나님께서서는 본문에서 “네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너의 하나님 나 여호와가 네게 준 땅에서 네 생명이 길리라”고 말씀하셨다. 사도 바울도 에베소서 6:2-3에서, “네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 있는 첫계명이니 이는 네가 잘 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고 말하였다.

하나님께서 부모를 공경하는 자녀에게 약속하신 복은 장수(長壽)의 복이다. 그것은 몸의 건강과, 심령과 환경의 평안과, 물질적 여유를 포함한다고 본다. 질병이나 전쟁이나 굶주림이나 사고 등은 사람의 장수를 가로막는 요소들이다. 또한 제5계명을 지키는 성도는 이 세상에서 장수할 뿐 아니라, 영생의 나라에 넉넉히 들어갈 것이다.

구약시대에 룻이나 에스더는 부모 공경의 대표적인 예이다. 모압 여자 룻은 자기 남편이 죽은 후 시어머니와 함께 유대 땅에 돌아와서도 그 시어머니를 공경하고 그의 말을 순종하였다(룻 3:5). 그는 하나님의 복을 받아 다윗 왕과 예수 그리스도의 조상이 되었다.

또 에스더도 자기를 길러 준 부모와 같은 삼촌 모르드개의 말을 장성한 후에도 순종하였다(에 2:20). 그는 유대인으로 파사 나라의 왕후가 되었고 또 유대인들을 멸망의 위기에서 구출하였다.

불효의 벌

하나님께서서는 불효하는 자들에 대해서 사형과 저주를 선언하셨다. 출애굽기 21:15, “자기 아비나 어미를 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

출애굽기 20:12, “네 부모를 공경하라.”

라.” 출애굽기 21:17, “그 아비나 어미를 저주하는 자는 반드시 죽일 지니라.” 레위기 20:9, “무릇 그 아비나 어미를 저주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 신명기 21:18-21, “사람에게 완악하고 패역한 아들이 있어 그 아비의 말이나 그 어미의 말을 순종치 아니하고 부모가 징책하여도 듣지 아니하거든 그 부모가 그를 잡아가지고 성문에 이르러 그 성읍 장로들에게 나아가서 그 성읍 장로들에게 말하기를 우리의 이 자식은 완악하고 패역하여 우리 말을 순종치 아니하고 방탕하며 술에 잠긴 자라 하거든 그 성읍의 모든 사람들이 그를 돌로 쳐죽일지니 이같이 네가 너의 중에 악을 제하라. 그리하면 온 이스라엘이 듣고 두려워하리라.” 신명기 27:16, “그 부모를 경홀히 여기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니라.”

잠언 20:20, “자기의 아비나 어미를 저주하는 자는 그 등불이 유암 중에 꺼짐을 당하리라.” ‘등불’이라는 말은 기쁨과 행복을 가리킨다. 잠언 30:17, “아비를 조롱하며 어미 순종하기를 싫어하는 자의 눈은 골짜기의 까마귀에게 쪼이고 독수리 새끼에게 먹히리라.”

우리는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이 중요함을 알자.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며 명령이다. 그것은 인간 관계의 윤리의 기본이다. 우리는 부모님을 공경하고 기쁘시게 하고 순종하고 보답해야 한다. 부모 공경에는 장수의 복이 약속되어 있다. 그것은 건강과 평안과 물질적 여유의 복을 포함한다. 또 부모를 공경하는 자들은 영생에 이를 것이다. 그러나 불효하는 자에 대해 구약성경에는 사형과 저주가 선언되어 있다.

부모를 공경하고 효도하는 일은 내일로 미루어서는 안 될 일이다. 자녀들은 지금 깨닫고 실천해야 한다. 아니, 벌써부터 실천했어야 할 일이다. 사람은 미련해서 보통 커서 결혼하고 자녀들을 낳고 기르면서 자녀로 인해 실망을 여러 번 겪은 후에야 비로소 부모 공경의 필요성을 깨닫는다. 그러나 이미 부모님은 돌아가신 후인 경우가 많다.